

햇반·즉석국·조리식 초밥서 곡물음료·발효유까지 등장

代用食이 진화하고 있다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건강식으로 인기

광주지역 매출도 작년보다 20% 늘어



▲콘스프 등 컵스프



▲'부드러운 한 컵'



▲'지중해의 아침'



▲'12곡 라떼'

아침 밥 대신 먹는 대용식(代用食) 시장이 급팽창하면서 대용식 제품들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햇반과 즉석국 등 가열해서 먹는 제품은 옛말이고 레스토랑에서 맛볼 수 있는 또피아와 초밥 등 완전 조리식품에 이어 최근에는 곡물음료와 발효유 등 마시는 대용식까지 등장했다.

14일 광주지역 유통업체에 따르면 아침을 거르는 20~30대 젊은 직장인들이 블루수머(Bluesumer·경쟁자가 없는 새로운 시장의 소비자)로 떠오르면서 대용식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대용식 매출도 1년전에 비해 20%가량 늘었으며 관련 업체들도 다양한 대용식을 내놓고 블루수머 잡기에 나서고 있다.

광주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는 대용식으로 RCF(요리하기 바로 전 식품)와 RHF(가열해서 먹는 식품), REF(완전 조리식품) 등이 혼용돼 팔리고 있다.

RCF는 집에서 바로 요리해 먹을 수 있는 제품으로 포장알탕·대구매운탕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하지만 갈수록 보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대용식을 찾으면서 RHF와 REF가 인기를 끌고 있다.

햇반으로 대표되는 RHF 제품은 최근들어 양이 다양해진 햇반은 물론 흑미밥과 나지뽕밥 등으로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며 즉석국도 청국장·전복 삼계탕 등으로 더욱 다양해졌다. 또 삼각김밥·볶음밥 등과 결합해 먹을 수 있는 컵 형태의 '즉석미소원장'이 호응을 얻고 있으며 컵스프도 인기다.

REF 제품만해도 250여 가지가 출시돼 있다. 특히 또피아와 같은 패밀리 레스토랑의 인기메뉴와 개당 500~900원으로 저렴한 초밥이 잘 팔리고 있다. 초밥의 경우 해산물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남성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얼마전부터는 곡물음료와 발효유 등 마시는 대용식까지 등장했다. 단킨도너츠가 내놓은 '12곡 라떼'는 검은콩에 조·참깨·쌀보리·콩·호밀 등 12가지 곡물을 우유와 혼합한 건강식이다. 풀무원녹즙의 '부드러운 한 컵 든든한 아침'과 맥도날드의 '오곡 셰이크'도 곡물과 해조류 등을 섞어 포만감을 물론 건

강까지 챙길 수 있어 인기다. 서울우유의 '지중해의 아침'과 파스타유업의 '내결에 목장 유가농 요구르트' 등도 발효유에 무화과·유기농 야채 등을 넣어 단순한 후식의 개념에서 벗어나 대용식으로 활용도가 확대되고 있다.

광주신세계 이마트 감정용 식품 팀장은 "바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대용식 수요가 늘면서 매출도 작년 대비 20%가량 증가했다"며 "광주 금남로 등 사무실이 밀집한 곳의 패스트푸드점들의 경우 대용식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산업 가족' 한마당 잔치 성료

시민 등 1,000여명 참석... 유공업체 표창

광주 광산업 활성화와 발전을 다짐하기 위한 '2007년 광산업의 날' 행사가 13일 광주시 쌍암공원 운동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박광태 광주시장, 김진영 광주일보사장, 전영복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등 각급 기관장과 광관련 임직원, 시민 등 1천여명이 참여했다.

광주광산업대표자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1부 체육대회, 2부 축제한마당으로 나눠 개최됐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1부 체육대회에서는 750여명의 광관련업체와 임직원들이 친선 축구경기, 가족참여 프로그램 등이 마련됐다. 2부 축제한마당은 오후 6시30분부터 쌍암공원 운동장에서 막이 올랐다. 광산업발전

유공업체 표창, 초청가수 공연 및 임직원 장기자랑 등이 3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초청가수로는 '콘드레 만드레'의 박현빈·준자·이진아 등이 대거 출연, 무대의 흥을 돋웠다.

또 이날 ▲금상=피피아(대표 김진봉) ▲은상=에프엔엔(대표 주양진) ▲동상=오리온광통신(대표 정승현), 이노센코리아(대표 최은용) 등이 광주시장으로부터 광관련 유공업체 표창을 받았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13일 광주시 쌍암공원에서 열린 '2007년 광산업의 날' 행사에서 비보이 댄스클럽이 축하공연을 펼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중소 수입 대체 개발사업 지원

중기청 총사업비 75% 이내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구매기관(국가기관·지자체·정부투자기관·대기업)의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신제품 또는 수입품의 국산화 개발비용을 지원한다.

또 개발단계부터 제품의 관료확보를 보장해줌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가로 70여 과제를 선정, 9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소프트웨어업, 소기업 등)은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신청 가능) 신청

이 가능하며 총사업비의 75% 이내, 최고 3억원까지, 개발기간 2년 이내(참여기업 25% 부담)에서 정부가 지원하고 개발성공시 구매기관이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구매를 보장해준다.

중기청은 현장·경영평가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기술성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업체를 선정되며 선정된 업체는 12월중 전문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고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신청은 오는 19일까지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smtech.go.kr)을 이용하면 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주택대출 한도 등 복잡한 금융계산

은행 홈페이지서 척척 산출

프로그램 잇따라 도입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한도, 은퇴자금, 주택 청약가점, 대출상환액 등을 고객이 직접 계산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계속 도입하고 있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번 주 홈페이지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국민은행은 이달 중순, 우리·기업은행 등 다른 은행들은 늦어도 다음달까지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이용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각종 규제 로 복잡해진 대출 한도를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손쉽게 확인

할 수 있다. 고객들은 인터넷상에서 아파트 소재지와 전용면적, 층수, 선순위 설정액, 거주기간, 다른 금융기관 대출현황, 소득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우리은행은 홈페이지 '금융상품몰'에 금융계산기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저금 월 불입액, 대출 분할 상환액, 환전 예상 금액, 기간별 카드 할부수수료 등을 계산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이달 말부터 홈페이지에서 은퇴자금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자신과 배우자의 나이, 자녀 수와 나이를 입력하고 예상 은퇴 연령, 현재 금융자산 등을 입력하면 은퇴 후 필요한 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 /연합뉴스

나주혁신도시 조성 순조

지장물 조사 등 보상 일정 재개

내달 8일 착공식 차질 없을 듯

나주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사업단과 주민들의 원만한 협력을 이끌어내며 기공식 부지 조성에 착수하는 등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

14일 한국토지공사 등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사업단에 따르면 지난 12일 혁신도시 예정지역 내 토지소유자들이 영농보상 등 토지보상안에 대해 전격 합의함으로써 이날부터 기공식 부지조성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지연됐던 지장물조사 등 토지 보상일정이 재개되는 한편 11월8일 착공식 개최 등 나주혁신도시 조성사업이 본격도에 오르게 됐다.

사업단측은 지난 8일부터 시작된 토지에 대한 보상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토지를 제외한 지장물조사 및 감정평가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 향후 혁신도시 조성 과

정에서 경료당 및 노인복지회관 건립 추진 등 지역민들에 대한 복지 증진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춘식 나주혁신도시 주민대책위원장은 "사업단측의 중재안이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이지만 혁신도시 건설이 지역 경제에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대응적인 차원에서 한발씩 양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참여정부 부동산 세수 100조원 넘어

참여정부 이후 지난해까지 4년간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해 징수한 세금이 10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과 관련된 국세와 지방세

합계 세수는 2003년 11조2천억원, 2004년 22조3천억원, 2005년 24조6천억원, 2006년 32조4천억원 등으로 4년간 100조4천억원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를 포함하는 국

세는 2003년에 4조2천억원, 2004년에 5조5천억원, 2005년 6조8천억원, 2006년 11조6천억원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으로 구성되는 지방세는 2003년 16조9천억원, 2004년 16조8천억원, 2005년 17조8천억원, 2006년 20조8천억원 등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1년 복리정기예금 연수익률 5.85%' (1-year compound interest savings account with 5.85% annual return). The ad includes a table of interest rates for various terms and features like '상업저축은행' (Commercial Savings Bank) and '업소타운 1층(업원 안)' (1st floor of business district).